

“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

조사대상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E-mail Survey)
표본규모	10,000명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pm 0.98\%$)
모집단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20~64세 취업자 23,902천명 (통계청, 2020년 2/4 취업자 통계)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 성,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 고려
조사 기간	2020년 10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보통사람 금융생활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 'NICE디앤알(주)'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용시 유의 사항

① 본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의 표본은 조사 연도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습니다.

표본 특성

구분		사례수
전체		10,000명
성별	남성	5,753명
	여성	4,247명
연령	20~29세	1,493명
	30~39세	2,245명
	40~49세	2,647명
	50~64세	3,615명
지역	서울	1,924명
	경기/인천	3,263명
	대전/충청/세종	1,115명
	광주/전라	919명
	대구/경북	923명
	부산/울산/경남	1,441명
	강원	282명
	제주	133명
직업	자영업/기업운영	1,352명
	사무직/공무원/교육직	5,399명
	전문직	789명
	판매서비스/기능/생산직	1,633명
	프리랜서	619명
	학생/기타	208명

월평균 가구 총소득 범위

구분	사례수	소득 범위	
가구소득구간	1구간	2,000명	40만원 ~ 250만원
	2구간	2,000명	250만원 ~ 380만원
	3구간	2,000명	380만원 ~ 500만원
	4구간	2,000명	500만원 ~ 650만원
	5구간	2,000명	650만원 ~

* 본 보고서의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② 본 보고서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를,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무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도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이 보고서별로 상이하므로 비교 등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③ 본 통계 정보는 잠정치로 다음 연도 조사 시 보완 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사는 조사 전문 기관인 'NICE디앤알(주)'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⑤ 본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한은행 Mydata Unit,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2020년 금융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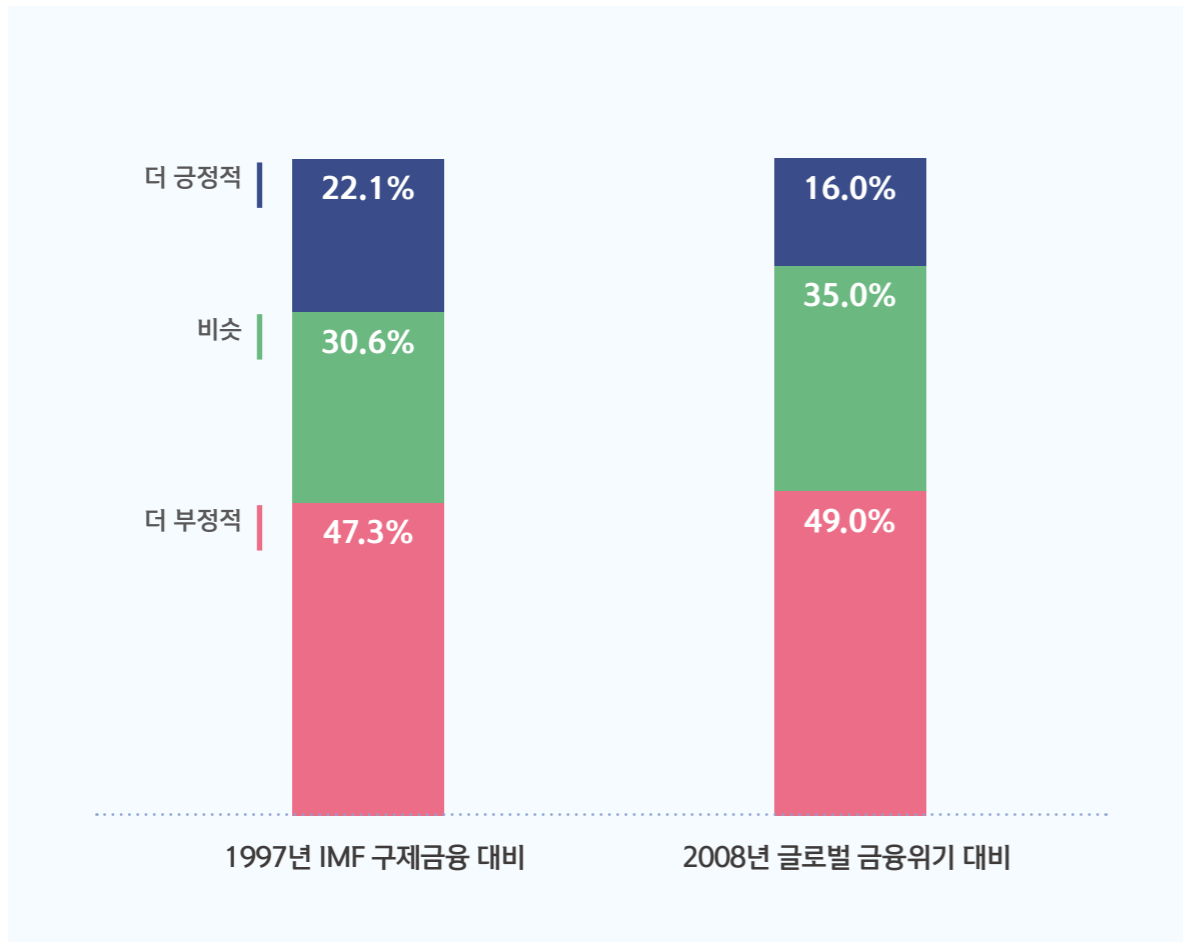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대처	36
2.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40
3.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패턴	44
4. 주식 투자 열풍	48
5. 부동산 신규 구입	52
6. 맞벌이 가구 소득	56
7. 자녀 사교육 행태	58

0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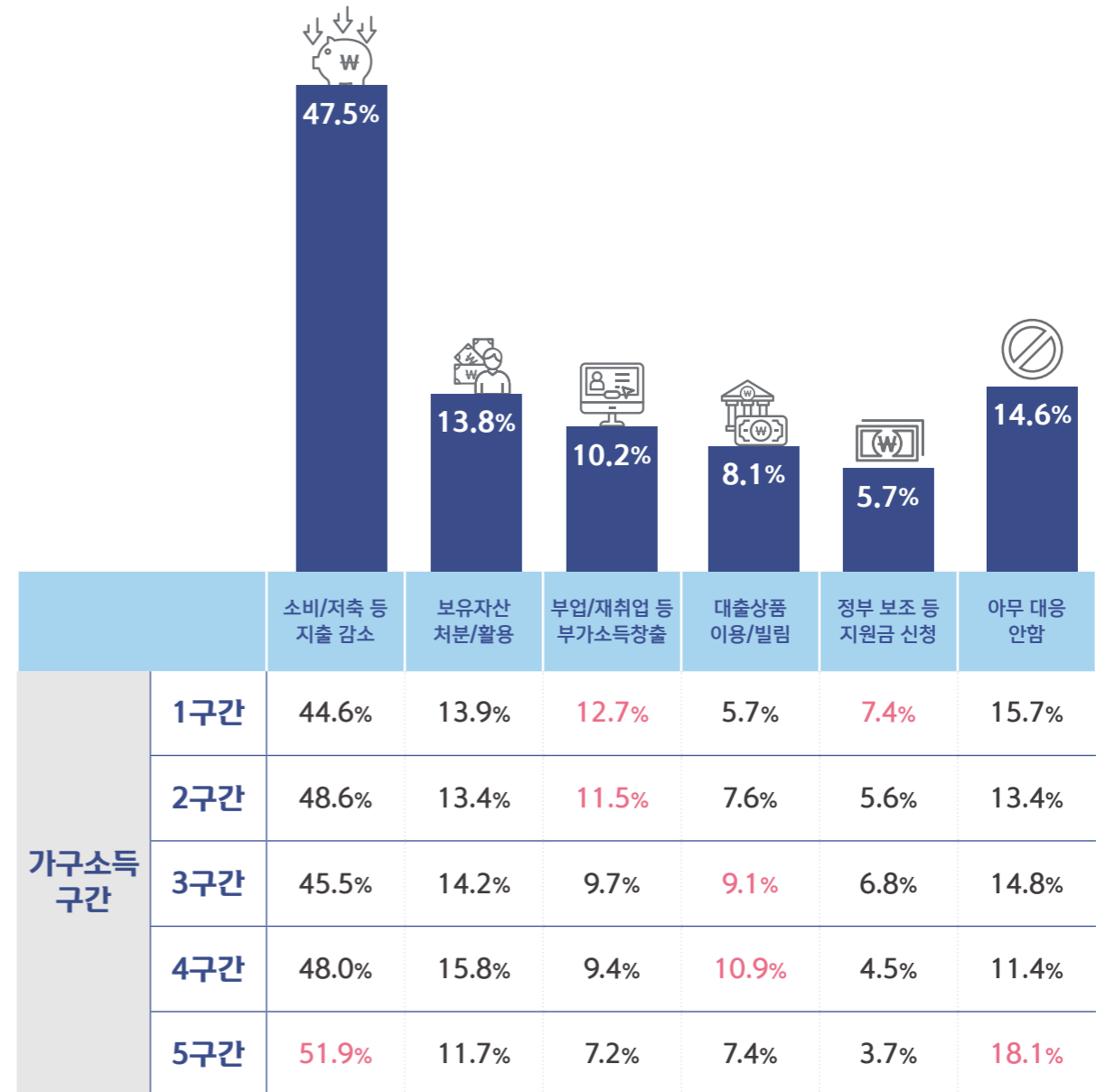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줄었음에도
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계경제 회복까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

4060이 생각하는 가계 경제에 미친 코로나19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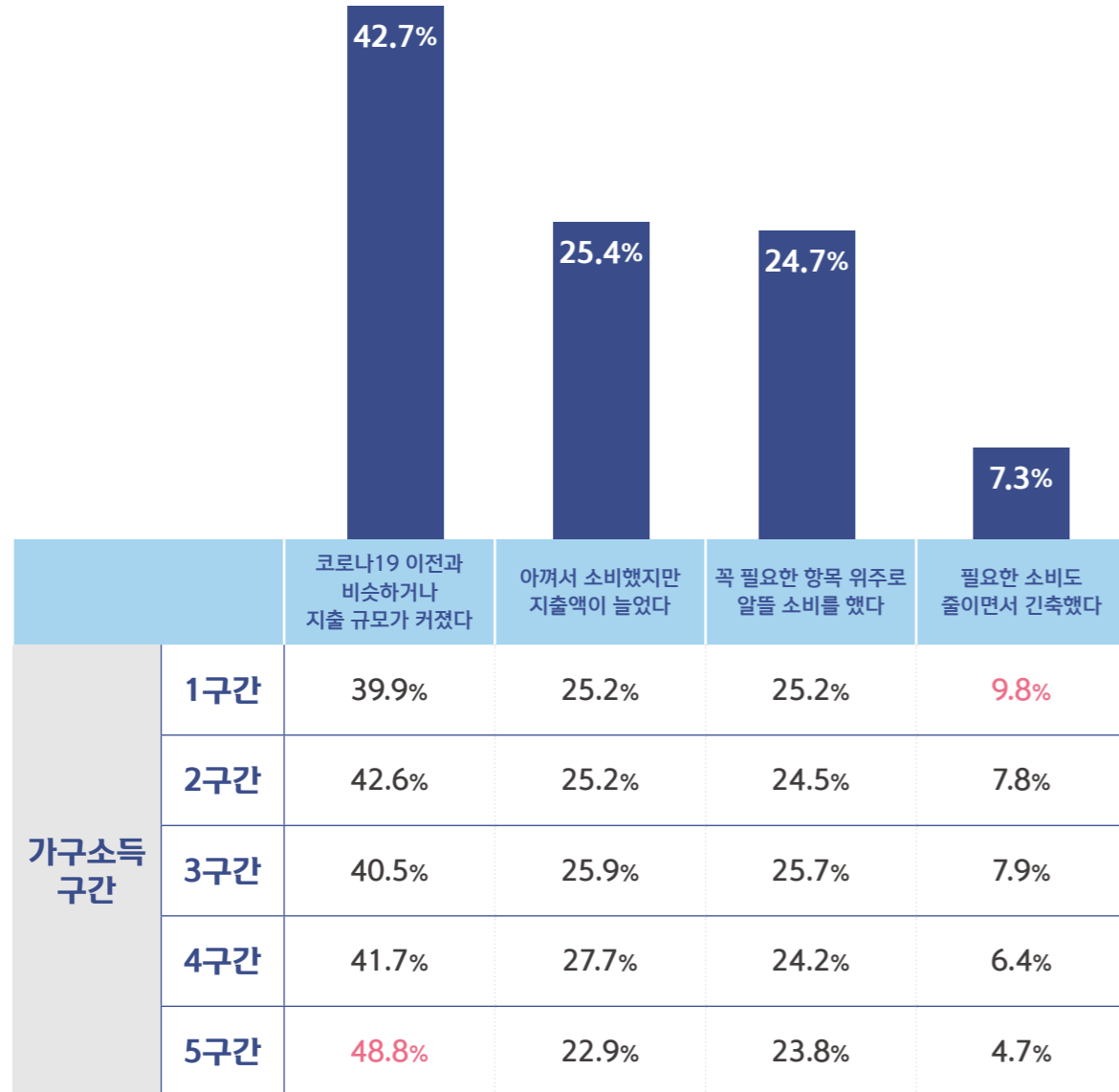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현 40대 이상 경제활동자 약 절반은 과거 당시보다 코로나19가 가계 경제에 미친 타격이 체감상 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비슷하거나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했다.

2020년 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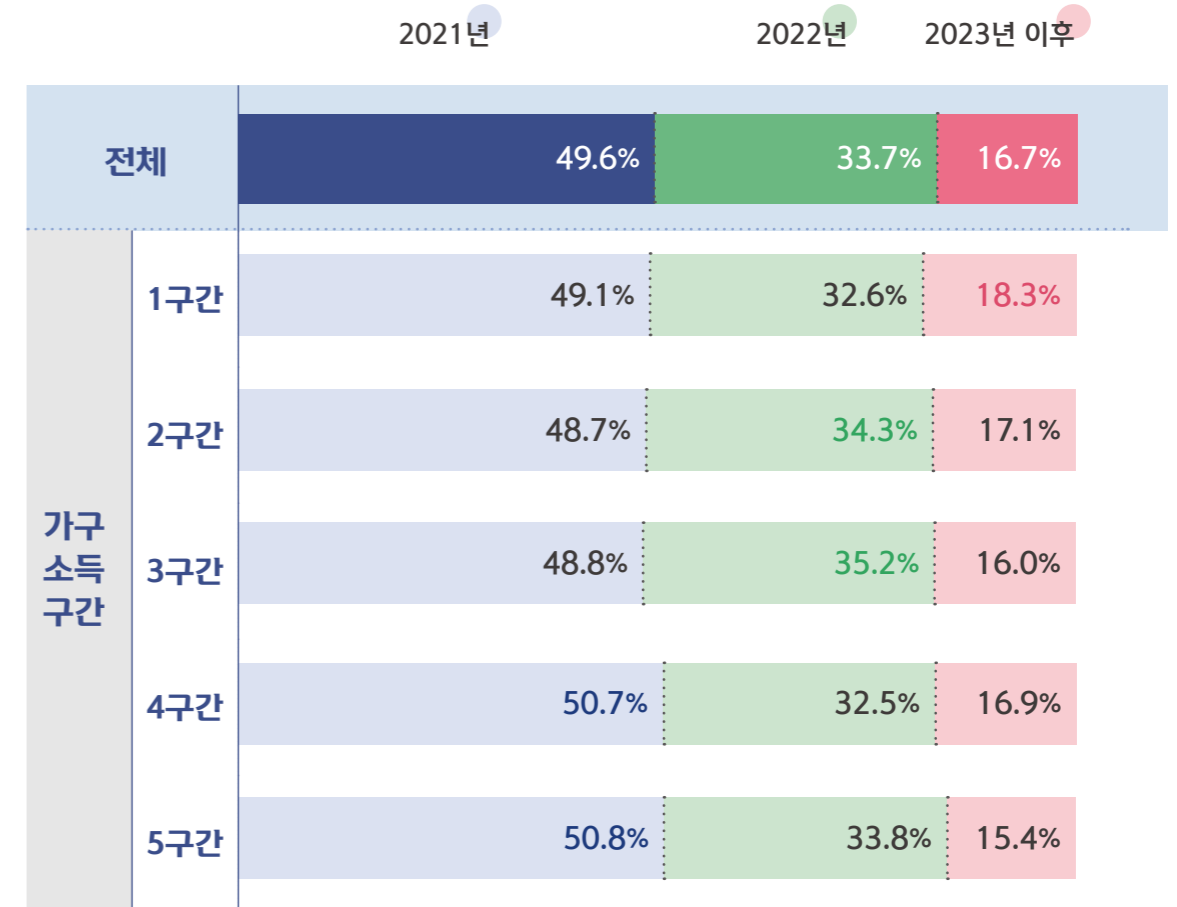
2020년 가구 총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비, 저축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선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 2구간은 부업을 통해 부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정부 보조금 신청 등 소득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했고, 3, 4구간인 중소득층은 대출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지출을 감소했거나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타 소득 구간 대비 높아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가계지출 운영 방안



소득 감소에 따른 간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가계지출이 더 커졌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42.7%로 경제활동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심지어 4명 중 1명은 아껴서 소비했지만, 지출액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거나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도 필요한 소비도 줄이면서 간축했다는 비율이 높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지출 운영에도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시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경제활동자의 절반 정도가 2021년으로 예상하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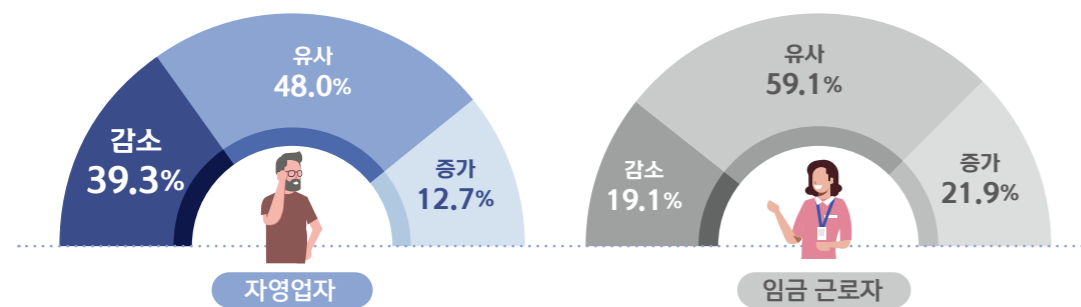


02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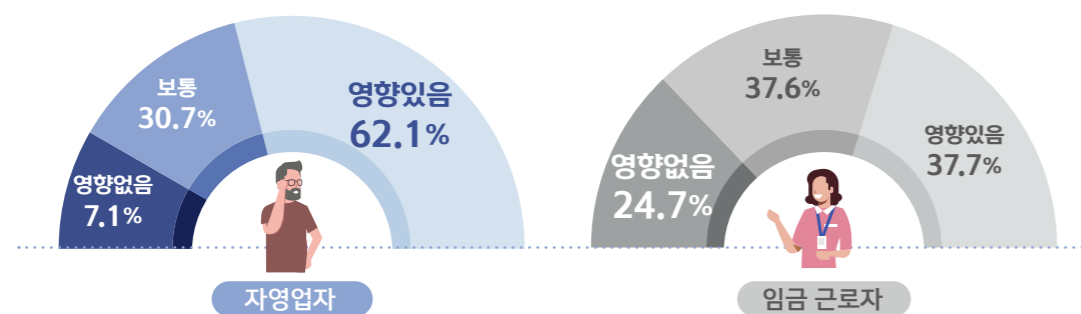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타격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대비 2배 이상 더 커 ”

업종별 2020년 월평균 매출액



가구소득 변화의 코로나19 영향



2019년 대비 2020년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 가구가 39.3%로 임금 근로 가구(19.1%) 대비 2배 이상 더 높았다. 이러한 소득 변화에 대해 자영업 가구의 62.1%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나, 임금 근로 가구는 그보다 절반 정도인 37.7%만이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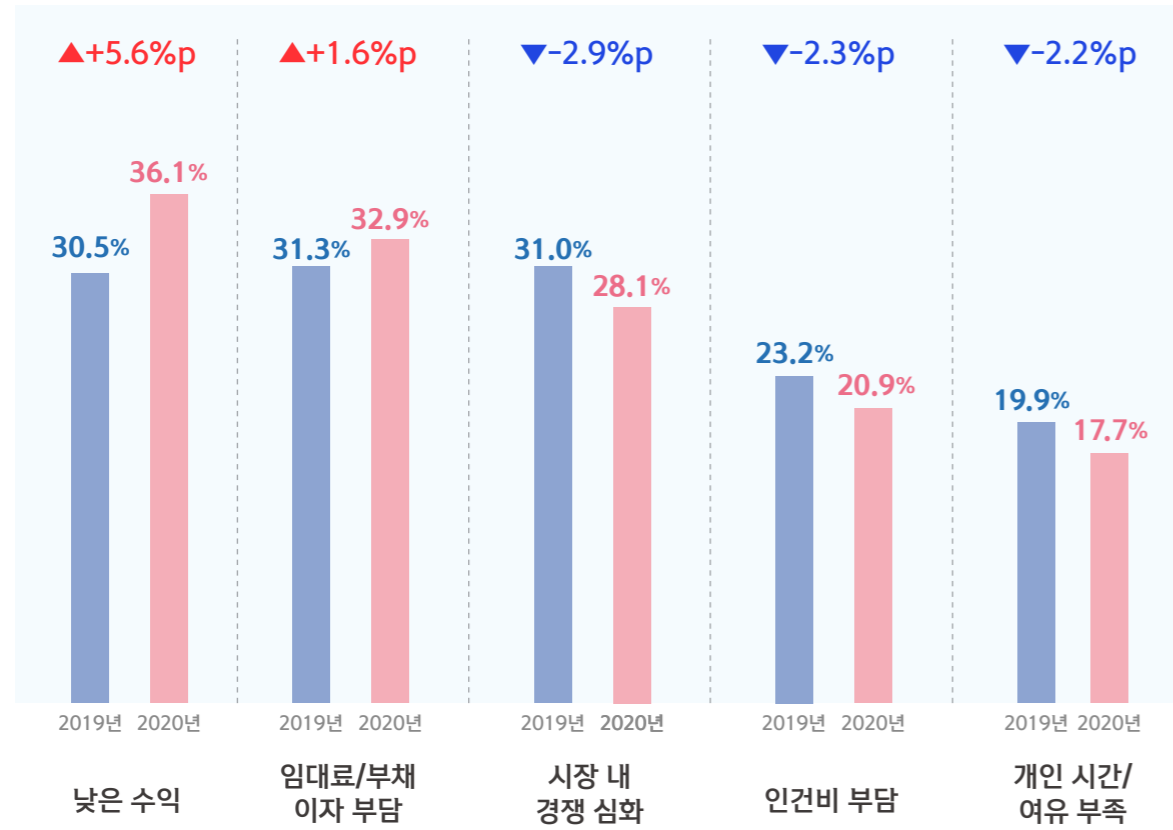
업종별 2020년 월평균 매출액

업종	2019년	2020년	Gap
전체	3,394만원	2,711만원	-20.1%
전문직 자영업	2,944만원	3,772만원	+28.1%
도매 및 소매업	3,005만원	3,289만원	+9.5%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1,287만원	1,352만원	+5.1%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1,047만원	1,043만원	-0.4%
건설업 및 광업	7,745만원	6,768만원	-12.6%
제조업	7,269만원	5,879만원	-19.1%
의류 및 잡화점	2,268만원	1,481만원	-34.7%
요식업	2,739만원	1,523만원	-44.4%
무역업	9,404만원	4,925만원	-47.6%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	1,803만원	833만원	-53.8%

* 자영업 업종별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필요

자영업자의 2019년 월평균 매출액은 3,394만원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2,711만원으로 약 700만원(20%) 감소했다.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 '무역업', '요식업', '의류/잡화점' 등이 2019년 매출 대비 1/3 이상 크게 줄었다. 반면, 전문직 자영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다.

자영업의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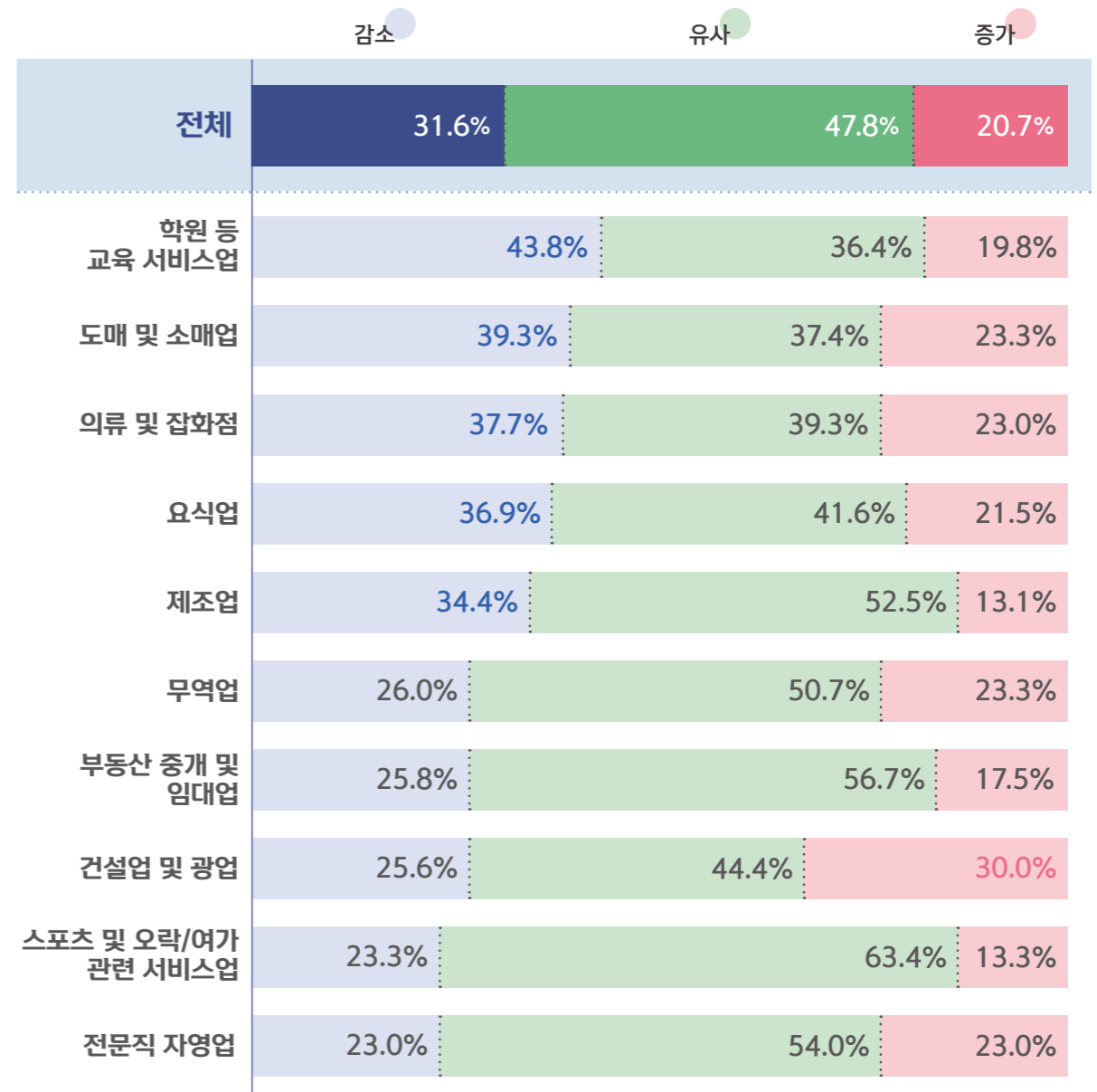


자영업자가 인식하는 운영상 애로사항은 '낮은수익'과 '임대료 및 부채 부담'이 주요한데, 이에 대한 응답은 2019년보다 높아져 내외부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 내 경쟁 심화',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장 위축, 고용 감소 때문으로 보여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종별 2021년 매출액 변화 예상



자영업자의 약 절반 정도는 2021년 매출이 2020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1.6%는 2021년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2020년 코로나19에도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해당 업종 10명 중 4명은 2021년에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2020년 매출 감소가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컸던 의류 및 잡화점, 요식업, 제조업 역시 2021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전체 자영업 평균 대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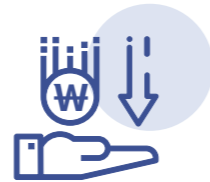
그 밖의 업종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건설업 및 광업 10명 중 3명은 2021년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03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패턴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으로 먹고 즐기며,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써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액 증감 항목 Top5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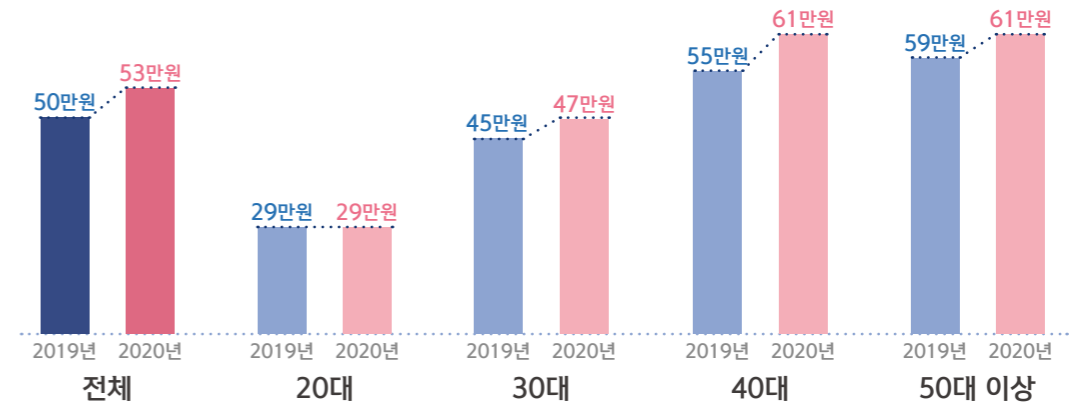
증가			감소		
1	음식 주문/배달	50.7%	1	해외 여행 비용	82.7%
2	식료품 구매/구독비	40.0%	2	의류/패션잡화 구매비	70.8%
3	가정 내 여가/운동/취미활동 비용	33.8%	3	레저용품 구매비	69.8%
4	콘텐츠 월정액 이용료	23.8%	4	운동 비용(헬스장 등)	68.2%
5	영양제/건강보조식품 구매비	19.1%	5	국내 여행 비용	66.7%

* 코로나19로 증가한 항목 없음 27% 제외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항목 1위는 '음식 주문/배달', 2위는 '식료품 구매/구독비'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주문/배달을 통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정 내 여가/운동/취미활동 관련 비용' 및 '콘텐츠 월정액 이용료'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관련 소비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소비액이 증가한 항목 5위는 '영양제/건강보조식품 구매비'로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도 함께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한 항목은 2위인 '의류/패션잡화 구매비'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에서 즐기는 여행 및 레저관련 항목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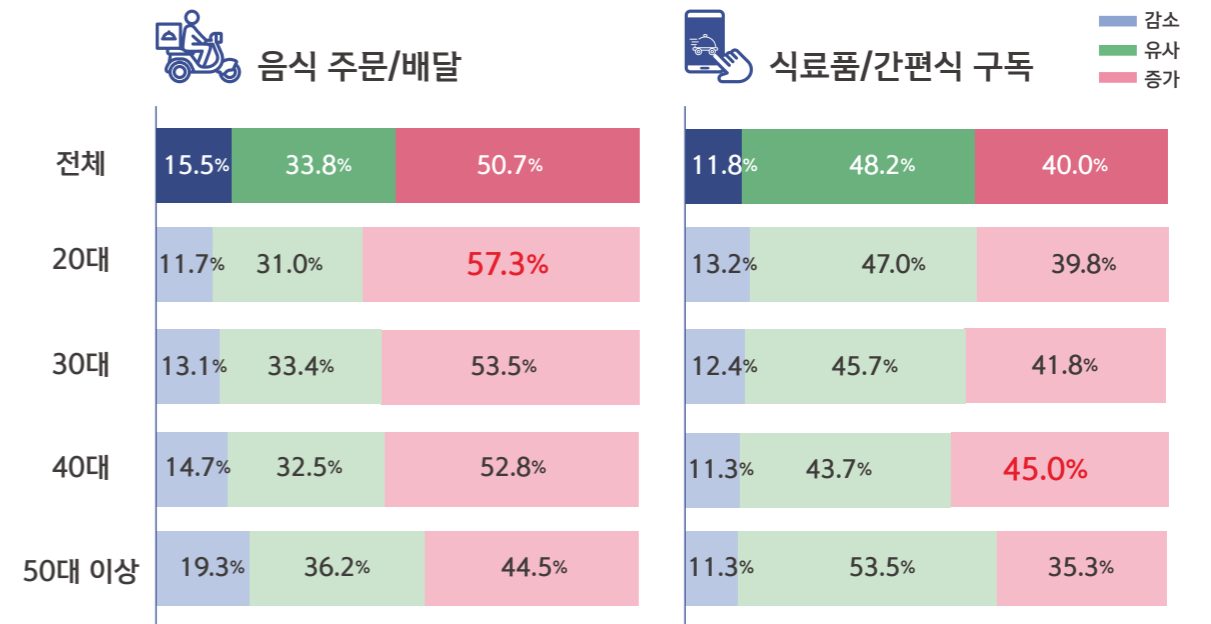
식비 관련 소비 행태

연령대별 월평균 식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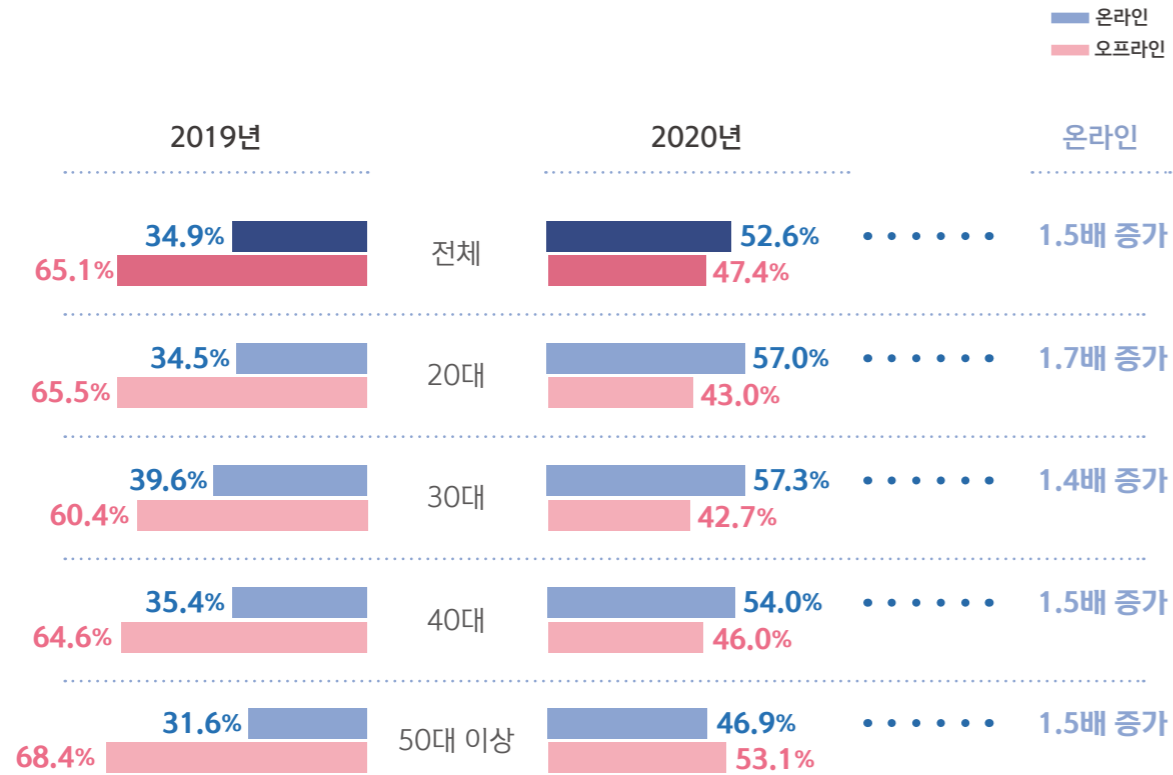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 2019년 대비 2020년 식비 지출은 40대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는 비슷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증감 여부



코로나19 이후 2가구 중 1가구는 음식 주문/배달 소비가 증가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식료품/간편식 구독 관련 소비는 10가구 중 4가구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40대의 증가 응답이 가장 높았다.

■ 식사 해결을 위한 장보기 채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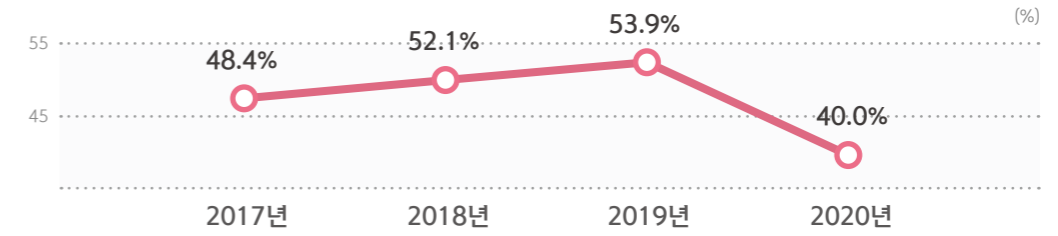


주문/배달과 같은 언택트 소비 행태를 반영하듯 식사 해결을 위한 장보기 채널은 2019년과 반대로 온라인 채널 이용이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2019년에는 장보기 10번 중 6~7번은 오프라인을 이용한 반면, 2020년에는 온라인 이용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장보기에 익숙한 50대 이상의 연령층도 40대와 비슷하게 온라인 채널 이용이 1.5배 늘어 코로나19가 소비 채널의 전환을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 관련 소비 행태

■ 여가/취미 활동비 월 고정 소비 비율



■ 월평균 여가/취미 활동비 지출액

(매월 여가/취미 활동비 고정 소비자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20만원	20만원	21만원	23만원
20대	14만원	15만원	16만원	18만원
30대	19만원	18만원	19만원	22만원
40대	19만원	20만원	22만원	23만원
50대 이상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

매월 여가 및 취미 활동에 경제활동자 2명 중 1명은 고정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이 비율은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 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10% 이상 큰 폭 감소했다.

그러나 매월 여가/취미 활동에 고정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 월평균 지출액은 2017년 20만원에서 2020년 23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즉, 여가 및 취미 활동에 매달 고정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자의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었지만, 코로나19에도 여가/취미 활동에 소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가/취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쓴 것이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여가/취미활동 고정 지출액은 20~30대가 많이 늘었으며, 50대 이상은 2017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됐다.

■ 여가/취미 활동 장소 비중

2020년 여가/취미 활동을 하는 장소는 집 안과 밖이 7 : 3 비율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야외보다 가정 내 여가 활동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7.8%



집안

32.2%



집밖

04 주식 투자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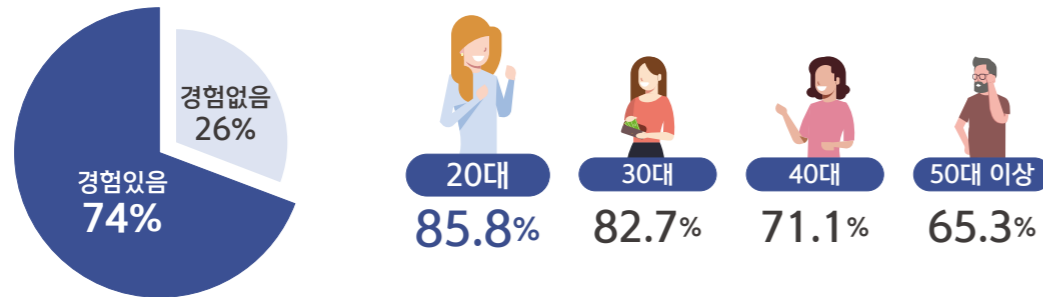


“ 2020년 주식 투자 열풍 중심에 20대가 있으며,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2배 증가해 빚투 우려 ”

주식 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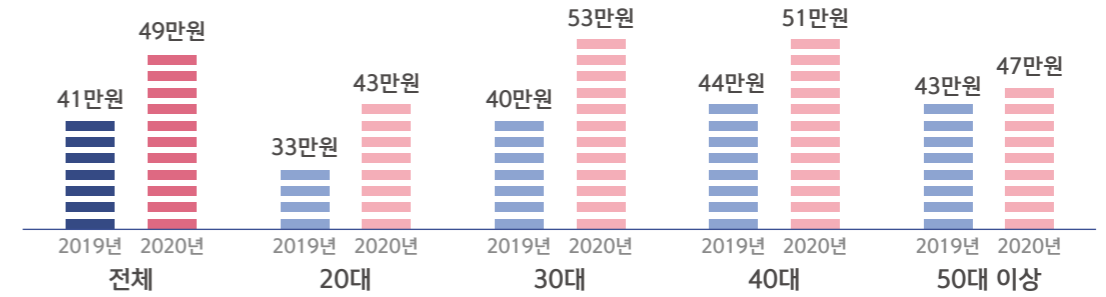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19년	29.9%	23.9%	28.3%	30.3%	33.3%
2020년	38.2%	39.2%	38.8%	38.5%	37.0%
Gap	+8.3%p	+15.3%p	+10.5%p	+8.2%p	+3.7%p

2020년 주식 투자자의 신규 가입 및 신규 종목 매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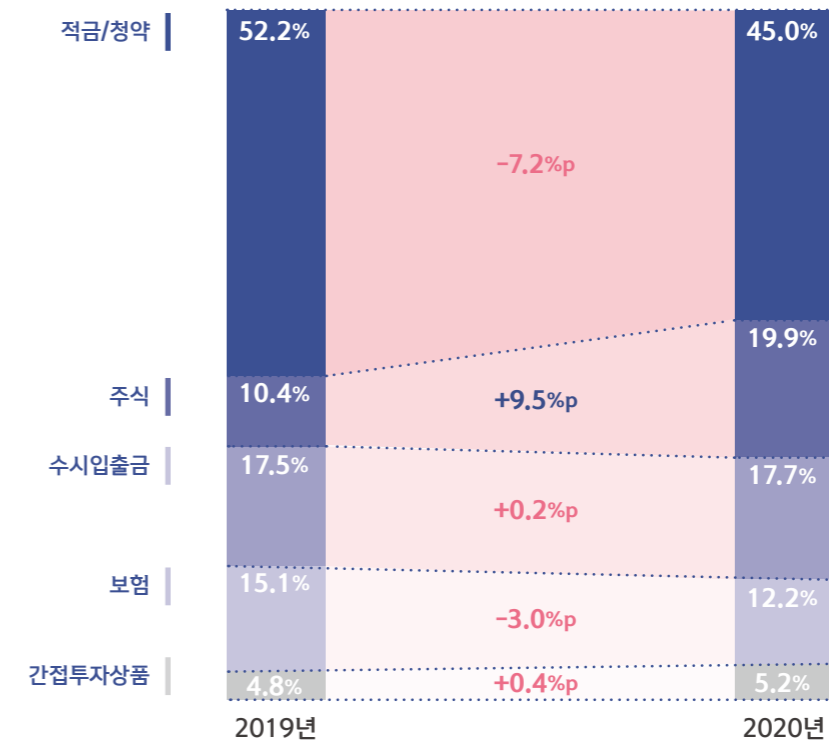


2020년 주식 투자 비율은 2019년 대비 전 연령층에 걸쳐 고루 증가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식 투자율이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9년 주식 투자율이 23.9%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낮았지만 2020년에는 39.2%로 가장 높아져 전 연령대의 주식 투자율이 비슷해졌다. 2020년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은 2020년에 주식에 처음 가입하거나 신규 종목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이례적인 투자 열풍을 보여주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주식 거래자 중 85.8%가 2020년에 신규 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식 투자자의 월평균 주식 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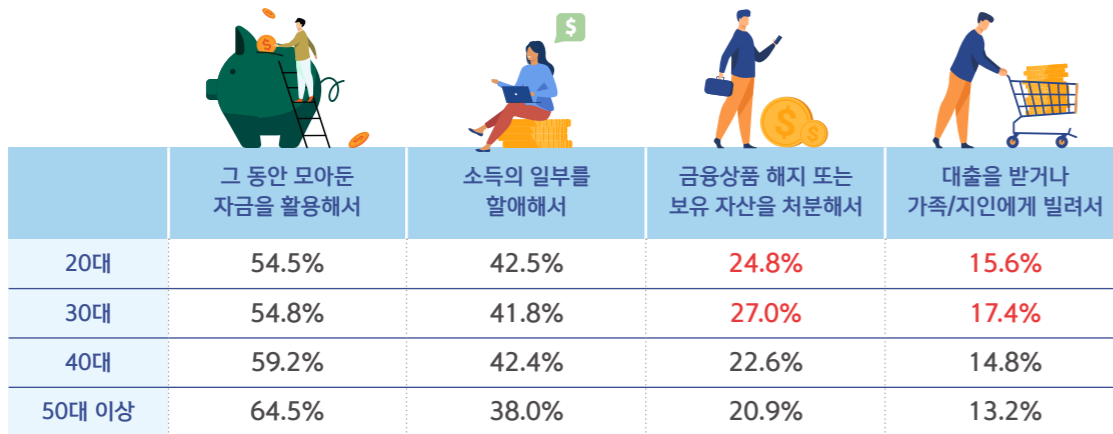


20대 주식 투자자의 저축 포트폴리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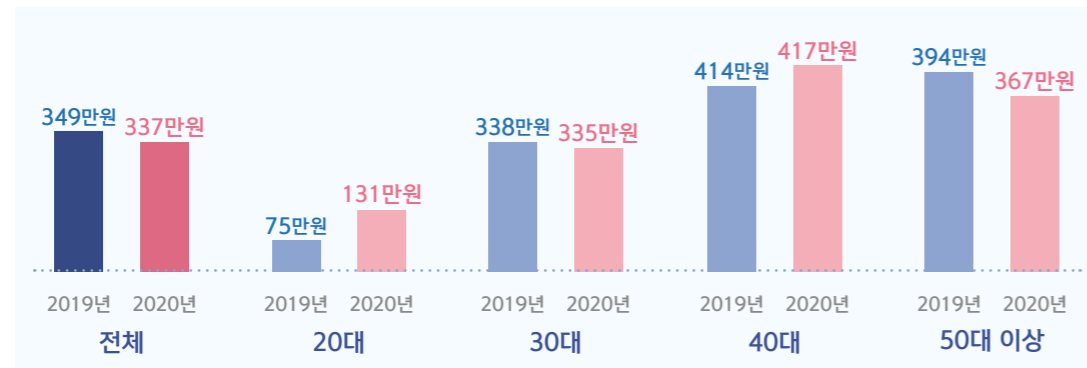
월 저축 포트폴리오를 보면, 2020년 월평균 주식 투자 금액은 49만원으로 2019년(41만원) 대비 20%(8만원) 늘었다. 특히 20대는 2019년 월 저축액의 절반 이상을 적금/청약에 안정적으로 적립했는데, 2020년에는 적금과 보험 비중을 크게 낮추고 저축액의 10%만 투자하던 주식에 2020년에는 20%로 비중을 약 2배 가까이 늘렸다.

올해 주식 투자금 마련 방법 (복수응답)



한편, 올해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은 대체로 '모아둔 자금'이나 '소득'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2030대 젊은 층은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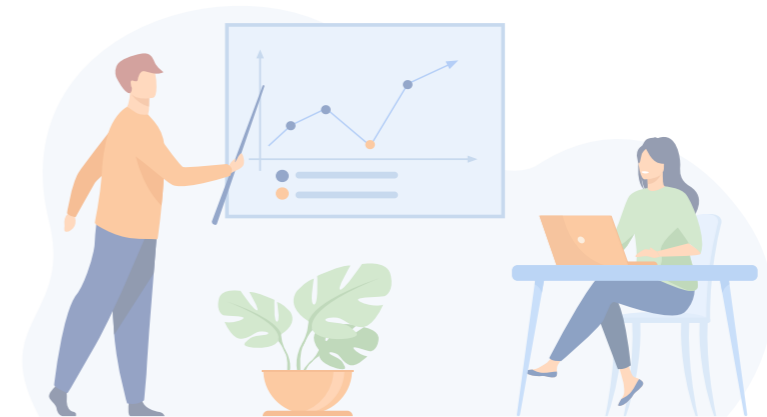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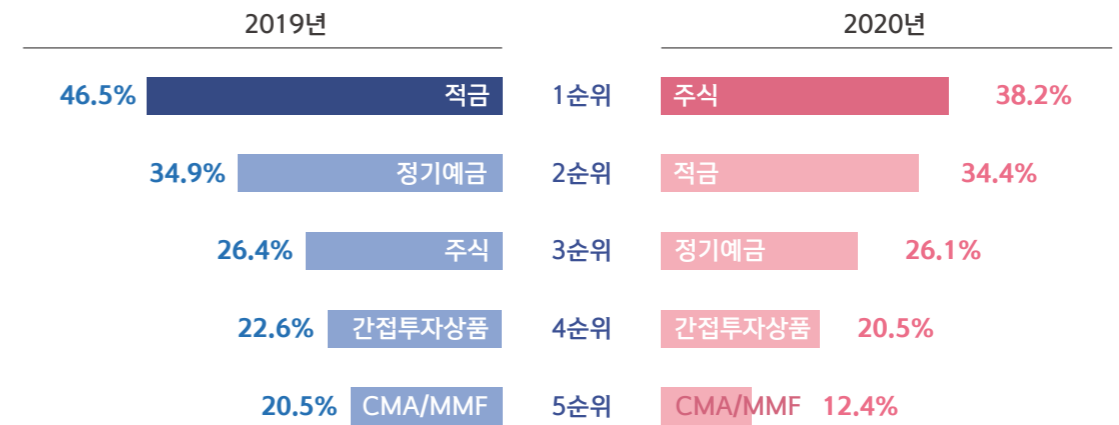


주식 투자 여부별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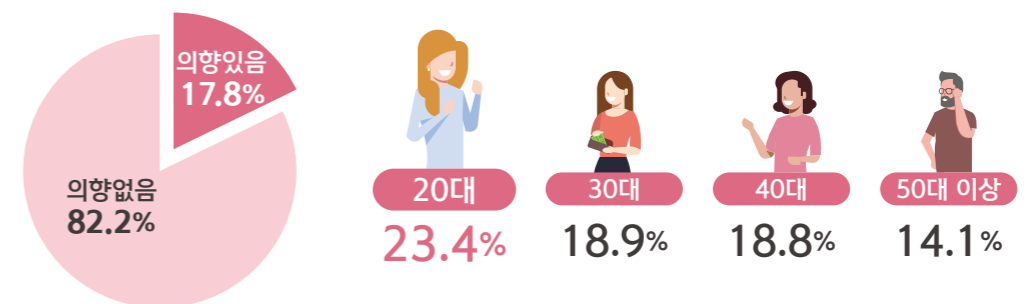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투자자	337만원	131만원	335만원	417만원	367만원
미투자자	144만원	36만원	97만원	185만원	186만원
Gap	2.3배	3.6배	3.5배	2.3배	2.0배

주식 투자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2019년과 큰 차이 없으나, 20대는 약 2배 정도 늘어나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131만원)은 주식을 하지 않는 20대 대비 3.6배 더 많은 수준이었다.

20대의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 금융상품



주식 미투자자의 향후 1년 내 주식 투자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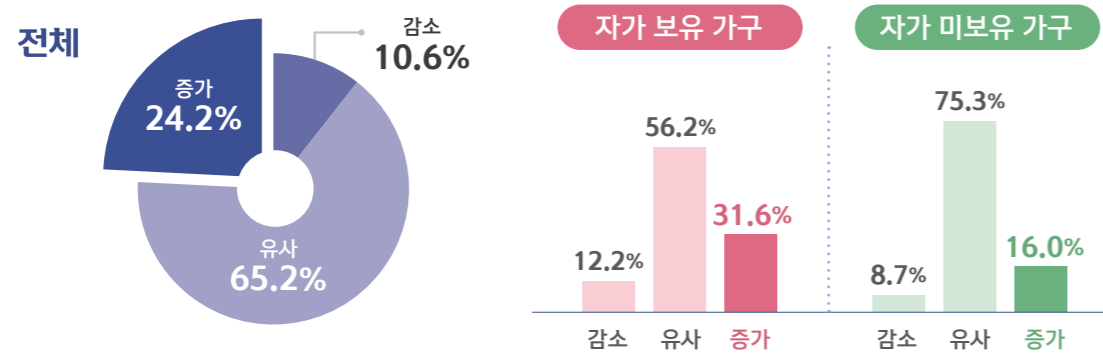
20대는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있는 금융상품 1순위로 2019년에 적금을 꼽았지만, 2020년에는 주식으로 나타나 2021년에도 주식 투자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미투자자도 향후 1년 내 주식 투자 의향이 17.8%로, 특히 타 연령대 대비 20대가 가장 높아 20대의 금융 포트폴리오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05 부동산 신규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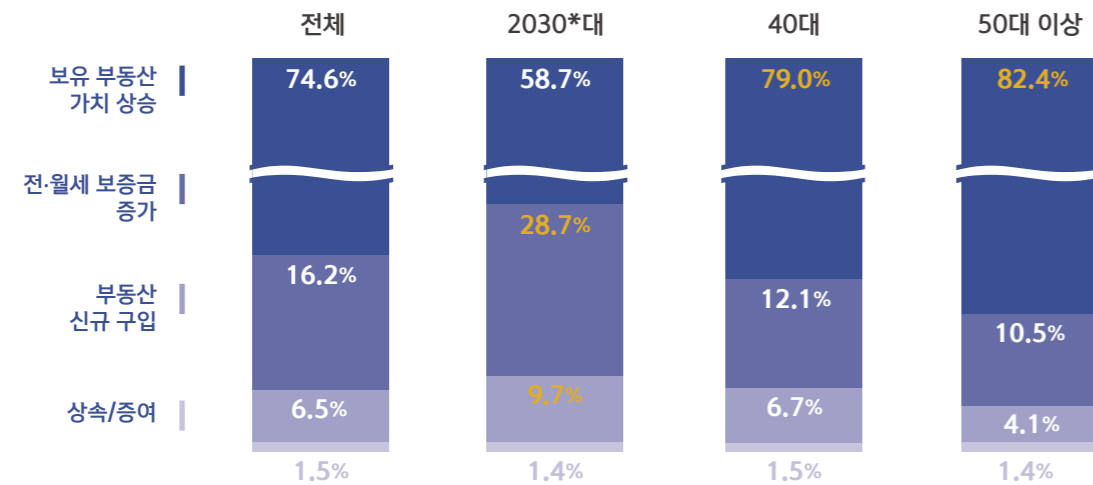


“ 2020년 내 집을 마련한 2030대는 집값의 절반을 대출로 충당, 높아진 집값에 부동산 구입은 고소득자만 꿈꿔 ”

2019년 대비 부동산 자산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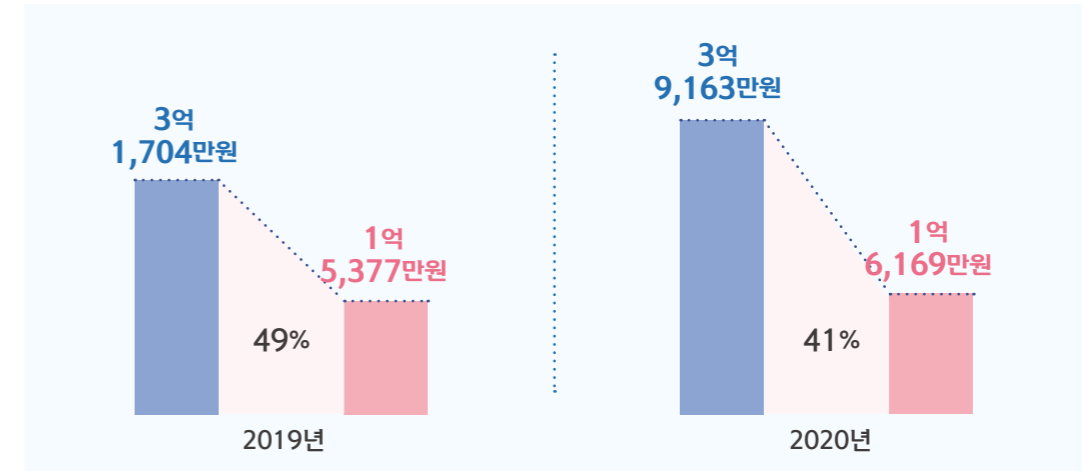
2020년 부동산 자산 증가 이유



202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 그쳐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대부분 유지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 보유자가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31.6%로 월등히 높았는데, 전·월세 등 본인 명의의 주택 미보유자(16.0%) 대비 2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높았고, 특히 고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그밖에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젊은 층은 '전·월세 보증금 증가' 및 '부동산 신규 구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 20대의 부동산 보유율이 낮아 30대와 합하여 분석함

최근 1년 내 자가 주택 구입 금액 및 대출 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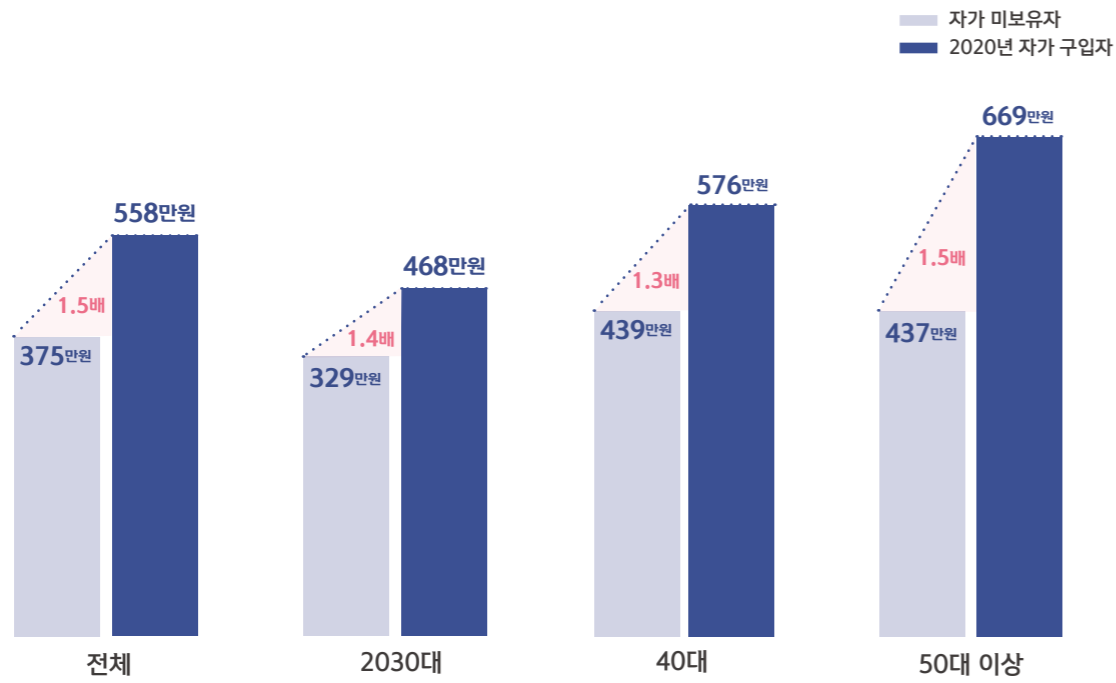


2019년 조사 당해년도에 주택 구입 시, 평균 3억 1천만원대의 비용이 들었으나, 2020년 주택 구입 시에는 평균 3억 9천만원이 들어 1년 사이 주택 구입을 위해 약 7,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했다.

2019년 자가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약 절반 정도인 1억 5천만원을 대출로 충당하였고, 2020년에는 집값의 41.3%인 1억 6천만원을 대출하여 2019년과 금액 차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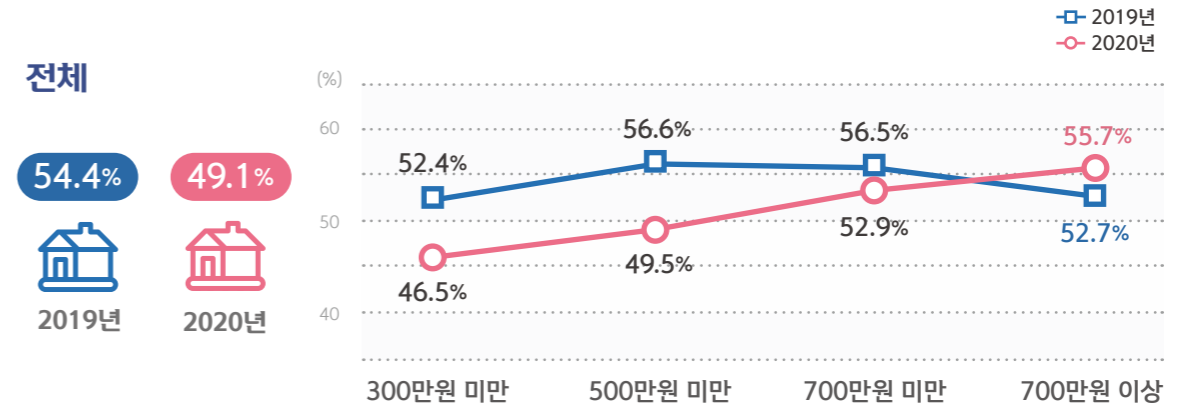
2020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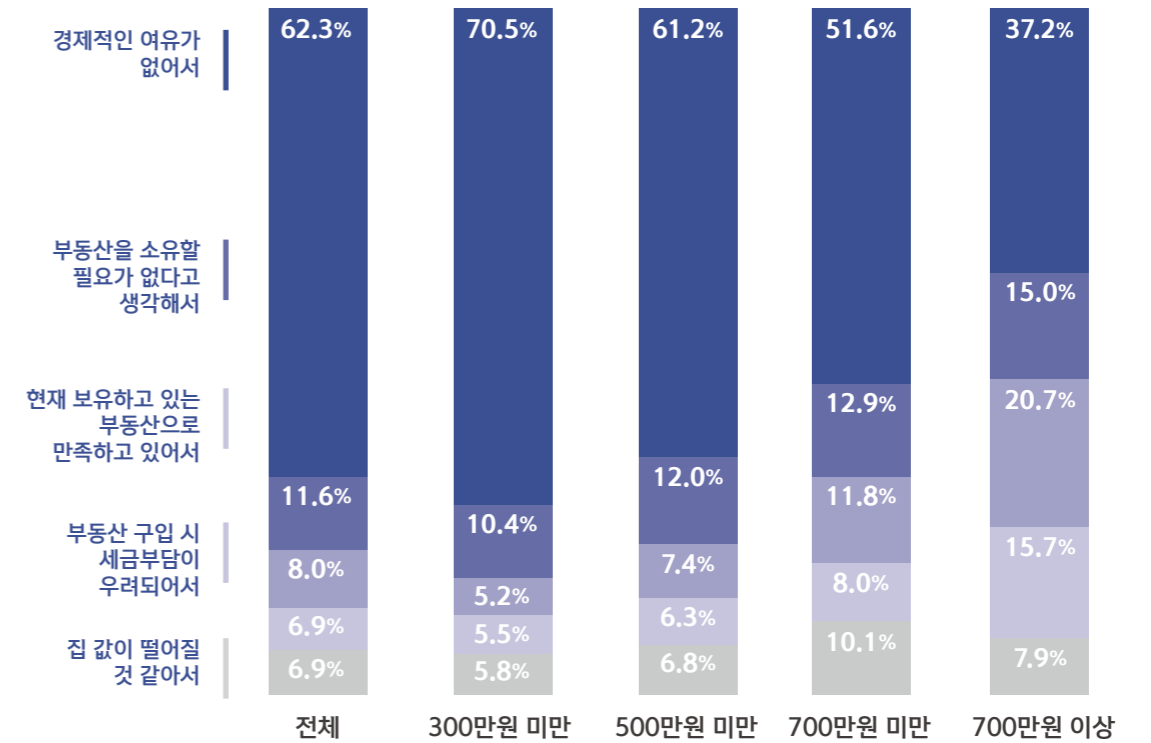
2020년 자가 구입자와 자가 미보유자의 가구 소득을 비교해보면, 2020년 자가 구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558만원으로 자가 미보유자의 소득 375만원 보다 1.5배 더 많았다. 2020년에 자가를 구입한 가구의 소득이 자가 미보유자 대비 최소 30% 이상 높아 경제력이 있는 가구만 집값 급등세 및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시도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가 미보유자의 향후 주택 구입 의향



자가 미보유자의 향후 자가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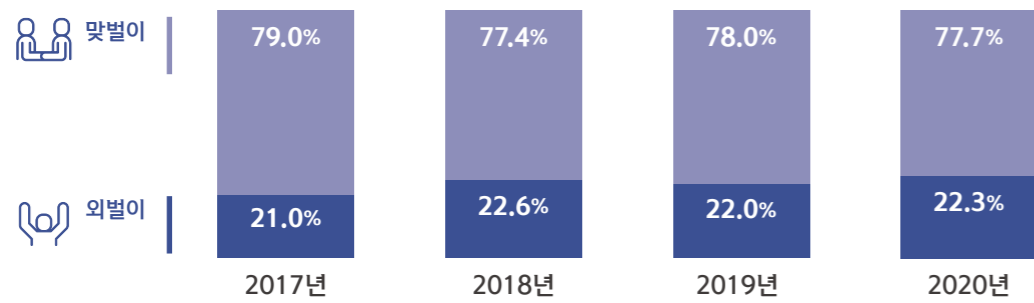
현재 자가가 없는 경우, 향후 자가 주택을 구입할 의향은 49.1%로 2019년 54.4% 대비 5.3%p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자가 구입 의향이 높는데,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만 구입 의향이 2019년 대비 증가했고, 그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자가 구입 의향이 모두 감소했다. 향후 자가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여력 부족'이 월등히 높는데, 코로나19로 가계경제는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해 저소득층의 구입 의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06 맞벌이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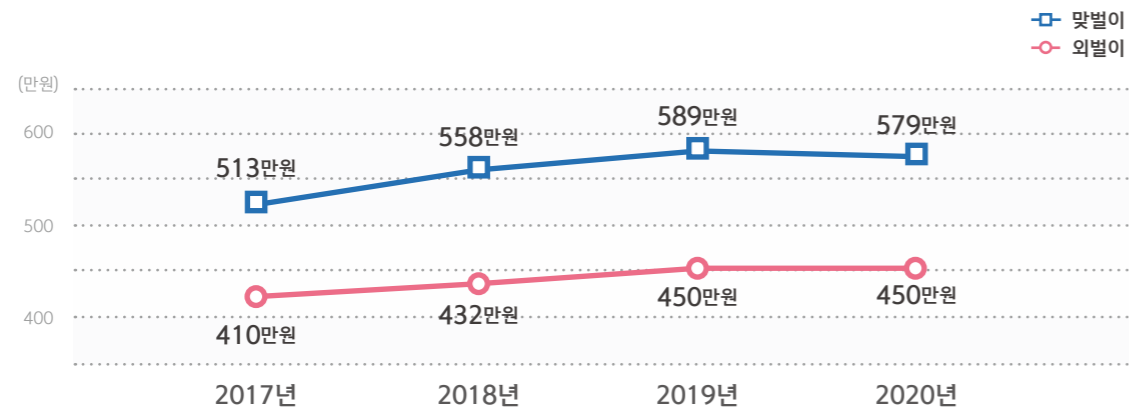


“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가구 소득 기여도 점차 커져

기혼 가구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경제 활동을 하는 기혼 가구 중 부부 모두 근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약 80%, 외벌이 가구는 20%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근로소득 격차 역시 1.3배로 꾸준했는데,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이 부부 2인 소득임을 고려할 때, 가구원 1인 소득인 외벌이의 근로소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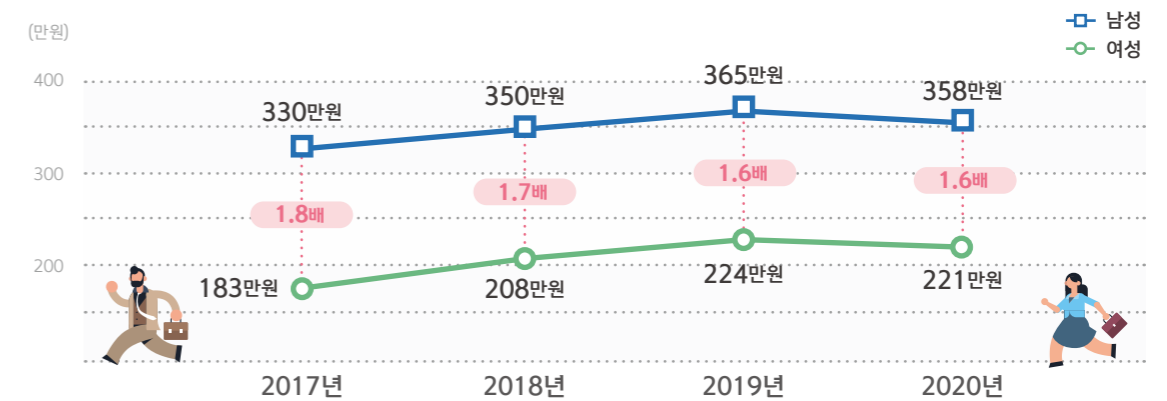
특히 2020년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했지만, 외벌이 가구는 유지돼 맞벌이 가구가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체감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이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아실현 등 일하기를 위해서
2017년	26.7%	20.1%	5.4%	18.0%	6.3%	8.4%	14.8%
2020년	28.4%	21.3%	6.4%	17.7%	6.0%	7.7%	12.4%
Gap	+1.7%p	+1.2%p	+1.0%p	-0.3%p	-0.3%p	-0.7%p	-2.4%p

부부 모두 근로 활동을 하는 이유를 보면, 2017년 대비 생활비, 노후 대비 및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목적이 높아졌고, 자아실현 목적은 낮아졌는데, 가구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가계 경제를 위해 맞벌이가 더욱 불가피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근로소득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 비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이 많거나 비슷함	21.1%	21.0%	21.2%	23.6%
남성이 많음	78.9%	79.0%	78.8%	76.4%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편은 300만원 중반, 아내는 200만원 초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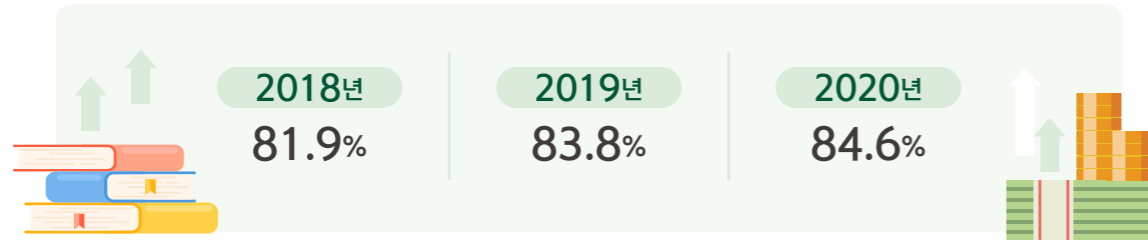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 1.6배 이상 더 많이 벌지만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 이상인 경우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에 23.6%까지 높아졌다.

07 자녀 사교육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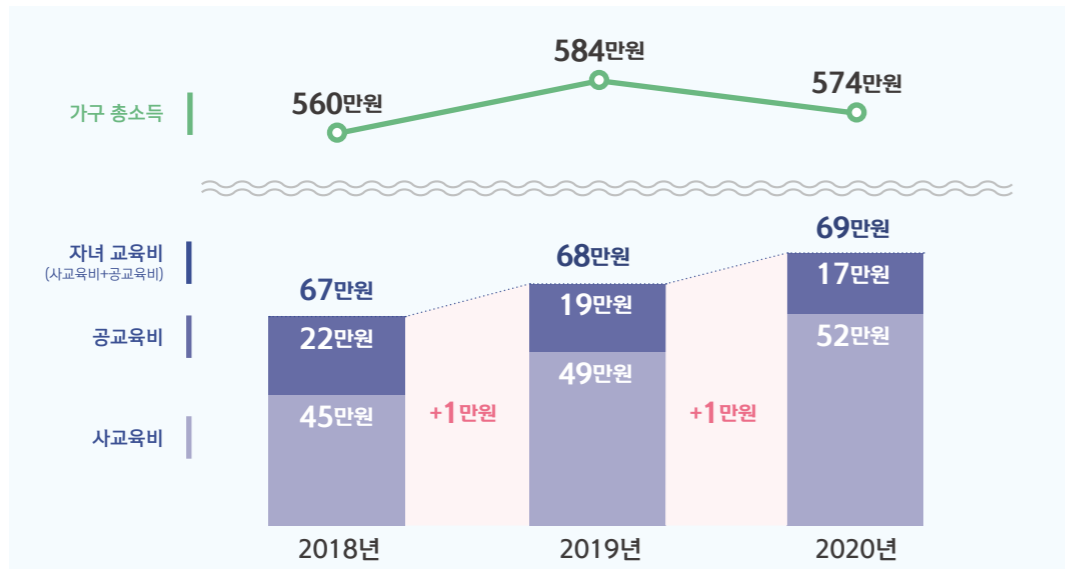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강남권 사교육비는 더 증가 ”

자녀 사교육비 지출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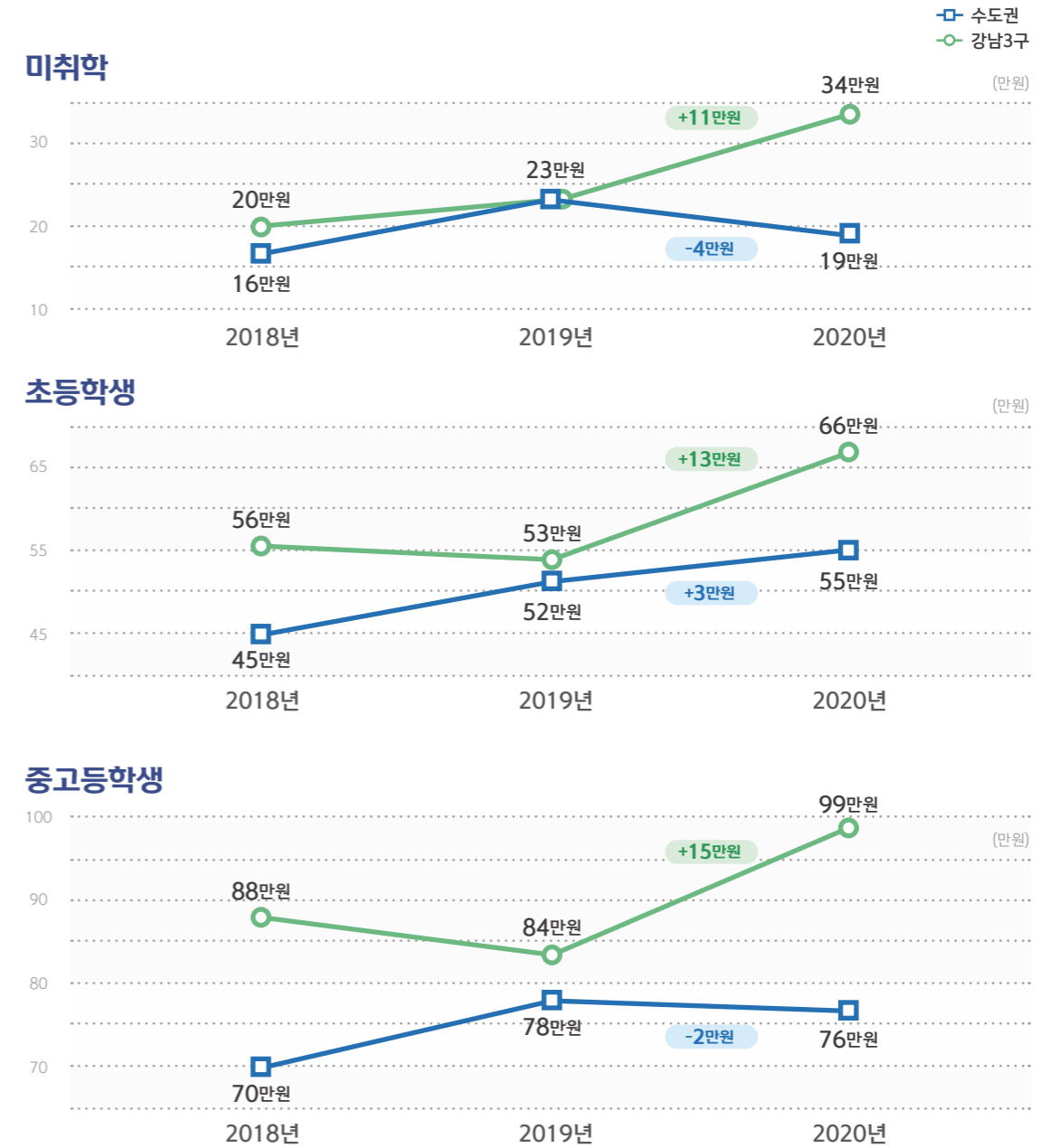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자녀 교육비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



학령기 자녀(첫 자녀 기준 고등학생 이하)를 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사교육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가구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는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출한 교육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교육비*는 지속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늘었다. 공교육비는 매년 줄고 있지만, 그 감소 폭 만큼 사교육에 더 투자해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은 여전히 유지-증가세였던 것이다.

* 공교육비는 공교육 기관에 지출한 금액 전체로, 미취학 자녀의 경우 유치원에 지불한 금액을 의미함

지역별 월평균 자녀 사교육비 비교



자녀 학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더 들어가는데, 2020년 수도권 기준으로 중고생 자녀 사교육비(76만원)는 미취학 자녀(19만원)보다 4배 많았다.
또한 수도권 기준, 2020년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학원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2020년 모든 학령기의 자녀 사교육비가 2019년 대비 증가했고, 학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더 많이 늘었다.
2020년 강남 3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수도권 평균 대비 미취학 자녀는 1.8배, 초등학생 자녀는 1.2배, 중고등학생 자녀는 1.3배 더 많아 강남권에서는 수도권 평균보다 취학 전부터 자녀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2020년 지역별 자녀 사교육 과목 비교 (복수응답)

미취학

	창의력 수업	예체능	국/영/수 주요 과목	사회/과학	코딩 등 IT 관련 과목
강남 3구	57.1%	54.8%	45.2%	11.9%	9.5%
수도권	42.9%	58.8%	40.7%	5.3%	6.6%

초등학생

	국/영/수 주요 과목	예체능	논술	사회/과학	코딩 등 IT 관련 과목
강남 3구	73.3%	60.5%	18.6%	10.5%	10.5%
수도권	73.6%	63.7%	12.1%	6.8%	6.8%

중학생

	국/영/수 주요 과목	논술	예체능	사회/과학	코딩 등 IT 관련 과목
강남 3구	88.9%	31.1%	28.9%	17.8%	4.4%
수도권	88.2%	16.7%	27.3%	8.6%	3.0%

고등학생

	국/영/수 주요 과목	사회/과학	논술	예체능	코딩 등 IT 관련 과목
강남 3구	90.6%	21.9%	21.9%	12.5%	6.3%
수도권	85.2%	11.8%	19.5%	13.5%	4.4%

자녀 사교육 과목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강남 3구가 수도권 평균보다 더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는 나이가 어린 만큼 창의력, 예체능 수업 비율이 높는데, 강남 3구에서는 예체능뿐 아니라 주요 과목 및 코딩 교육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강남 3구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는 수도권 평균 대비 국/영/수 주요 과목 외에도 논술, 사회/과학 과목의 사교육 비율이 높았다. 강남 3구의 고등학생 자녀는 입시를 대비한 주요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율이 특히 높아 사교육 과목에도 지역 차이를 보였다.